



‘오래 지속되는 딥 레드의 아름다움’

다렌버그 아마라썬 쉬라즈

The Amaranthine

지역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포도품종	쉬라즈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와이너리 내부적으로 최고의 와인으로 꼽히는 뛰어난 와인으로 강렬한 피니쉬가 인상적이다. 흙의 느낌과 보이젠베리(블랙베리, 라즈베리, 로건베리를 교배한 딸기류)의 아로마, 블랙커런트, 약간의 짭쭇름한 듯한 느낌이 오묘하게 어우러진다. 다부진 듯한 느낌이 있는 와인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유려한 과일 느낌이 많이 풍겨오는 매력적인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흰 육류/ 익힌 생선/ 익힌 채소/ 치즈/ 훈제, 염장 음식/ 피자, 파스타		



제품설명



아마라썬(Amaranthine)은 아티스트에게는 '자칫빛'으로,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같은 존재' 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이다. 와인 메이커 체스터에게 아마라썬은 이 두 개의 의미를 모두 담은 단어로, '딥한 레드'의 '아름다움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뛰어난 와인인 이 와인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다. 20개월의 프렌치 오크 바리크 숙성으로 한결 다듬어진 풍미를 자랑하는 와인으로 와이너리가 보유가 가장 뛰어난 빈야드의 쉬라즈를 선별하여 양조한 프리미엄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5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2점
2014빈티지 제임스 홀리데이 James Halliday 94점
2013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고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쉬라즈 & 비오니에를 블렌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